

## 한국형 이사브라운 개량으로 국내 시장 보급

- 산란계 부분 국내 10% 점유 -



▲ 송인환 대표

국내 대표적인 산란종계부회장은 한양부회장, 조인, 성진부회장, 인주부회장, 봉산부회장, 파주부회장, 신진부회장 등이 있다. 이중 경북에 위치한 성진부회장은 국내 특성에 맞게 개량된 한국형 이사브라운 품종을 보급해, 현재에는 산란계 부분에서 국내 9~10%를 점유하고 있다.

30년간 종계·부화 사육에 전념하면서 보다 국내 환경에 맞는 산란계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진부회장 송인환 대표를 만나 보았다.

### 종계와 함께한 30년

송인환 대표는 1972년 군 제대 후 경북 영천에 위치한 경북축산(주)(현, (주)KC Feed)에 입사하면서 사료 마케팅 영업을 담당했다. 농장을 오가던 중 1977년 우연치 않게 이웃부회장의 육용종계 1천5백수를 위탁받아 종계사육과 알 납품을 시작했다. 1980년도에는 4대의 마스터피스를 갖춘 부회장을 인수해 종계사업을 확장하면서 규모 있는 농장으로 거듭났지만, 1981년도 홍수로 인해 육용종계 2천수가 모두 폐사하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재기에 재기를 거듭해 일어섰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산란종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87년 데칼브와렌 품종을 도입했고 이어 세이버 백색계, 1989년에는 로만브라운, 1991년에는 헝가리에서 테트라를 수입해 국내에 보급했다. 현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란종계 이사브라운 품종과 테트라 품종을 수입한 업체로부터 토종닭원종계인 하코 품종을 수입해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2004년부터 한국형 이사브라운 품종

을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기존 품종만 고집하려는 사양가들의 편견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번 이사브라운 품종을 사양해 본 농장은 품종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사브라운 품종은 매년 2월, 8월말 두차례 국내로 수입하는 성진부화장 송인환 대표는 기존 5만 수(D라인기준)에서 올해에는 5만 2천수가량이 수입할 예정으로 국내 10% 가까이 점유율을 보일 것이라 밝힌다.

### 경북지역에 위치한 농장

송인환 대표는 경북지역 3곳에 산란계농장과 부화장 및 토종닭 원종계농장과 종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위치한 부화장은 3개동으로 건평 1,980㎡(600평), 김천시 봉산면에 위치한 산란종계장은 육추사 5개동, 성계사 7개동으로 D라인 기준 5만수 규모로 건평 9,900㎡(3,000평)로 설비되어있다.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한 토종닭 원종계장은 하코 품종 원종계 D라인 기준 1만 수로, 건평 2,640㎡(800평)이고, 같은 지역에 토종닭 종계장은 건평 5,000㎡(1,500평)로 한해 300만 수가량의 실용계를 생산하고 있다.

### 한국형 이사브라운 특징

기존에 수입해온 이사브라운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산란계가 낡은 알 난각에 검은 반점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많았다.

송인환 대표는 프랑스 본사로부터 국내 환경에 맞고, 소비자가 원하는 이사브라운을 육종 개발해 공급받기로 체결해 지난 2004년 2월 한국형으로 개량한 이사브라운 종계를 첫 도입했다. 이사브라운 품종은 2004년도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생산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량해 들여오면서 과거 이사브라운 품종에 비해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형 이사브라운은 산란수, 난중, 사료요구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 난중이 1g 가량 낮아지면서 특대란 비율이 높아졌다. 50주령 이상 키워도 65g 이상되는 왕란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알 생산이 가능하고, 산란 전기간을 통해 난각색의 농도가 1포인트 가량 높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과거 이사브라운과 비교해 난각 저하 요인이 감소해 점박이와 계란 끝부분에 까칠한 것이 20~30% 가량 감소했다. 한편, 호우유니프가 기존에 비해 3~4포인트 가량 높아져 우수한 환경 적응력과 높은 생산성으로 거듭나는 이사브라운을 자랑한다.

실제로 타 품종과 비교했을때 국내 농장의 80주령에 산란 성적이 324개로 5~8개 이상 많았고, 80주령 생존률은 92.6%로 1~1.5% 가량 높은 수치를 볼 수 있었다.

### 무항생제 종계 사육

성진부화장은 2006년부터 무항생제 사육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초생추 생산에 일조하고 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유산균제제와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생균제를 섞어 무항생제 사료를 공급 하면서 이사브라운은 평사 사육으로 산란피크에 산란율 93%를 도달하고 있고, 28주령 이전에는 부화율을 생산하지 않고, 또한 63주령 이후에는 전수도태를 통해 품질 좋은 병아리를 생산 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있다

송인환 대표는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 한국 축산의 밑거름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정리 | 장성영 기자)